

## 농촌진흥청 '서비스혁신 사례' 우수한 평가 받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출 기술,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 작물 개발 사례, 장려상 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와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48개 기관 지정·운영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시에이(CA) 컨테이너 적용 기술과 활용 기준을 개발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에이(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물류비를 절감해 항공수송 대비 20~600% 수익을 증대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풀사료 '알팔파' 신품종 2종(알파원, 알파킹)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종자주권을 확보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알팔파는 단백질 함량(18~20%)이 풀사료 중 가장 높으며, 소화율과 기호도 또한 우수하다. 전 세계 축산인들이 가장 선호해 '풀사료의 여왕'이라 불린다. 개발한 국산 알팔파 건초로 수입 건초를 대체하면 연간 수입 비용을 약 1,300억 원 절감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조재호 청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유대회는 38개 책임운영기관에서 70개 우수사례를 제출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사례 중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대학생 현장평가단 심사를 거쳐 지난 29일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붙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시상식 사진

담당 부서 <총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책임자	과 장	우강하 (063-238-6100)
		담당자	연구사	이선이 (063-238-6131)
담당 부서 <공동>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책임자	과 장	한만희 (063-238-7120)
		담당자	연구사	강선문 (063-238-7128)

##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시상식 사진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이지현(왼쪽 5번째), 장민선(왼쪽 6번째) 연구사가 상을 받고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기원 연구사(왼쪽 3번째)가 상을 받고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